



키비탄소식

2013년 ● 특집호

Builders of Good Citizenship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신정순(申廷淳) (사)국제키비탄한국본부 이사 별세

제15,16대 국제키비탄한국본부 총재를 역임하셨고, (사)국제키비탄한국본부 이사로 재직 중이시던 신정순 박사가 2013년 8월 9일 향년 86세로 별세하셨다.

고인은 1951년 세브란스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70년부터 연세의대 교수로 입문하신 뒤 연세의료원 재활원장과 세브란스병원장을 역임하셨다. 1972년 대한재활의학회 이사를 역임하시면서 보건사회부정책자문위원, 한국특수교육학회, 국제재활협회총회와 장애인복지법국제회의의 한국대표 등을 맡으며 국내 재활의학 발전과 장애인 복지에 크게 공헌하셨다. 1992년에는 한국재활재단 이사를 역임하시며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장, 한국뇌성마비복지회장, 대한재활의학회 명예회장, 한국장애인재단 이사 등을 역임

하셨다. 또한 1982년부터 1989년까지 국제키비탄 한국본부 사무총장으로 키비탄과 인연을 맺어 1989년부터 1991년까지 국제키비탄한국본부 15,16대 총재를 역임하시고 고령에도 고인이 되시기 직전까지 국제키비탄 아시아지역 이사과 한국본부 이사를 맡아 키비탄과 늘 함께하시면서 장애 어린이들의 권익증진과 인식개선을 위해 평생을 힘쓰셨고 키비탄의 훌륭한 시민정신과 봉사정신을 몸소 실천하면서 널리 알리는 일에 크게 이바지하셨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 받아 국민훈장 석류장과 모란장을 수상하셨고, 한국장애인 인권상, 서재필의학상, 국제키비탄 공로상 등 다수의 훈포장상을 수상하셨다.



키비탄의 버팀목이신 신정순 전 총재 별세(2013. 8. 12. 충주 진달래공원에서)

故 신정순 박사의 발자취

학력 및 경력

1945. 4. ~ 1951. 11.	세브란스의과대학 졸업(의학사)
1951. 9. ~ 1957. 8.	육군 군의관 복무 후 예편
1959. 3. ~ 1963. 4.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 수료
1963. 5. ~ 1966. 12.	삼육아동재활원 의료부장
1964. 3. ~ 1969. 12.	연세의대 정형외과 강사, 임상조교수
1970. 2.	연세대대 의학박사학위 수여
1970. 1. ~ 1992. 8.	연세의대 조교수, 부교수, 교수
1971. 2. ~ 1981. 10.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무국장
1972. 3. ~ 2013. 8. 9.	대한재활의학회 이사
1972. 4. ~ 1982. 3.	한국특수교육학회 회장
1972. 5. ~ 1992. 8.	연세의료원 재활원장
1973. 12. ~ 1979. 10.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
1977. 4. ~ 1979. 6.	제6차 범태평양 국제재활회의(서울) 사무총장
1978. 10. ~ 2013. 8. 9.	서태평양 뇌성마비학회 이사
1978. 10. ~ 1979. 10.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
1980. 4. ~ 1982. 3.	보건사회부 사회보장 심의위원
1980. 5. ~ 2013. 8. 9.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사
1980. 9. ~ 2001. 6.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이사, 부회장
1980. 10. ~ 1982. 10.	대한재활의학회 부회장
1981. 5. ~ 1981. 8.	독일 괴테대학교 및 뮌헨대학교 교환교수
1981. 5. ~ 1987. 3.	의료보험 진료비 공동심사위원(비상근)
1982. 4. ~ 1983. 4.	보건사회부 정책자문위원
1982. 10. ~ 1989. 9.	국제키비탄 한국본부 사무총장
1982. 10. ~ 1984. 10.	대한재활의학회 회장
1983. 3. ~ 1988. 9.	연세의대 재활의학교실 주임교수
1984. 5. ~ 1989. 5.	서울장애인자율림픽조직원위원회 집행위원
1986. 10. ~ 1988. 10.	대한재활의학회 회장
1986. 10. ~ 1988. 10.	국제키비탄 한국본부 부총재
1987. 3. ~ 1991. 2.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
1987. 3. ~ 1991. 2.	연세사회복지재단 이사
1987. 3. ~ 1991. 2.	대한병원협회 총무이사, 부회장
1987. 3. ~ 1991. 2.	대한기독병원협회 이사
1989. 10. ~ 1991. 10.	국제키비탄 한국본부 총재
1989. 10.	국제재활협회 총회(Madrid) 한국대표
1992. 8.	연세대학교 의대교수 정년퇴임
1992. 10. ~ 2013. 8. 9.	한국재활재단 이사
1995. 10.	제5회 서태평양뇌성마비협회 서울국제회의 조직위원장
2001. 6. ~ 2012. 10.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회장
2001. 6. ~ 2004. 1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사
2001. 10. ~ 2003. 12.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회장
2002. 11. ~ 2013. 8. 9.	대한재활의학회 명예회장
2004. 1. ~ 2005. 12.	장애인의 날 행사추진협의회 회장
2004. 2. ~ 2013. 8. 9.	한국장애인재단 이사
2006. 5.	제4차 세계재활의학 학술대회 명예대회장
2012. 10. ~ 현재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명예회장

수 상

1981. 4. 20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1995.	국제키비탄 공로상 수상
1997. 5. 26	연세대학교 총장 공로패 수상
2007. 12. 3	2007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
2011. 12. 15	서재필 의학상 수상
2013. 4. 18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추모사

고 신정순 선생님 영전에 바칩니다.

선생님, 항상 저희들의 큰 어른으로 저희 곁에 영원히 계실 것 같던 선생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저희 곁을 떠나시니 저희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습니다.

사모님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기시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저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셨던 선생님을 하나님 곁으로 보내는 저희들은 이제 미어지는 가슴을 추스르면서 선생님의 영전에 이 글을 올립니다.

선생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날까지 몸소 본을 보이시는 삶을 살아 오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항상 열정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도전과 개혁을 하는 데 앞장을 서시었으며 장애우를 위한 봉사로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저희들을 새로운 세계, 더 나은 세계로 이끌어 주시면서 정의가 무엇인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보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엄한 꾸지람으로, 때로는 묵묵히 홀로 몸소 실천함으로써 저희를 가르치셨습니다.

1983년부터 선생님을 모시고 일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일이라면 최우선으로 열정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야말로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987년 11월 독일에서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자, 1989년 10월 어느 날 저를 데리고 어느 모임에 가서서 저보고 이 단체를 위하여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단체가 국제키비탄 한국본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제가 사무총장으로 2005년 4월까지 16년간 봉사하고 이제는 총재로서 선생님의 뒤를 이어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항상 키비탄의 재정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지요? 특수 어린이 대잔치 행사와 자선의 밤 행사 때는

광고후원을 확보하느라 많은 노력을 하시고 행사 시에는 남들은 식사를 다해도 선생님께서는 행사 챙기시고 걱정하시느라 식사도 못하셨지요. 행사가 끝나도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자리를 뜨지 않고 지키셨던 기억이 납니다.

활동이 위축되는 클럽이 있으면 클럽회장과 회원들을 찾아가서 회원 확보하고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독려하시던 것이 눈에 선합니다.

선생님께서 15대, 16대 총재를 역임하시고 나서도 굳은 일은 모두 맡아 하셨지요? 키비탄 클럽이 오늘날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의 노력과 정성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모든 분들은 잘 압니다. 그러한 선생님의 열정과 노력을 인정하여 키비탄 국제본부에서는 2004년 선생님을 아시아 지역 대표이사로 임명하여 이 지역의 발전을 선생님께 맡기셨고 선생님께서 아시아 각 나라 총재님들과 키비탄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지요. 다행히 선생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인 2011년 9월 국제키비탄 한국본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제가 첫 번째 이사장 겸 총재를 맡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을 때 선생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저에게는 보람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운명하실 때까지 키비탄의 미래를 걱정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키비탄은 저희가 잘 지키겠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평안히 쉬십시오.

선생님께서 재활의학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1972년 대한재활의학회를 창립하시고 대한재활의학회를 창간하시는 데도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제가 세계재활의학회 회장이던 2007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재활의학학술대회를 세계의 모든 회원들이 전무후무한 역대 최고의 성공적인 학술대회라고 칭송할 때, 명예대회장



박창일 총재

이시던 선생님의 그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치질 줄 모르는 열정으로 재활의학 분야를 개척하셨습니다. 재활의학 전문의 제도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의지 보조기 기사, 재활심리사, 재활 사회사업사 등 모든 재활분야에 선생님의 손길이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한국장애인 재활협회를 만들고 성장시키는 데도 큰 공헌을 하시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선생님을 재활분야의 대부로 칭송하는 이유입니다.

1983년 연세의대 재활의학교실을 창설하시어 많은 인재들을 배출시키셨고 이들은 지금 전국 곳곳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재활의학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호된 꾸지람을 들으면서 올바르게 배운 제자들은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최고의 전문의로 환영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엄하시지만 마음은 따뜻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그 따뜻한 마음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 것 같습니다. 일찍이 중학생

시절에 전국 미술전에 최연소자로 입상할 정도의 타고난 미술가며, 서예와 문장력도 빼어나 주위에서 선생님께 연설문을 부탁하면 명연설문을 작성하시어 모두가 감탄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뇌성마비복지회 발전을 위해서도 평생 몸을 바치셨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을 받은 수많은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선생님 영전에 헌화하고 애통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평생의 봉사로 지난 4월 모란장 훈장을 받으셨을 때 모든 장애우들과 키비탄 회원과 재활의학회 회원들이 얼마나 기뻐하였습니까? 선생님은 이 시대의 진정한 봉사자요, 우리 모두의 큰 바위 얼굴입니다.

선생님을 떠나보낸 저희들은 가슴이 미어지고 다리가 풀려 제대로 설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꾸지람이 껌전을 뱉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슬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럴 시간 있으면 봉사하고 일하세요!”

선생님,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고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가겠습니다.

이제 이곳의 일은 저희들에게 맡기시고 하늘나라에서 평안하십시오.

2013년 8월 12일
국제키비탄 한국본부 총재 박창일 올림



키비탄을 생각할 때면 故 신정순 박사님의 넘치는 장애인 학생 사랑과 키비탄을 자식처럼 아끼시고 귀히 여기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키비탄 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큰 행사는 봄에 열리는 「특수어린이대잔치」와 겨울에 개최되는 「자선의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에 개최되는 키비탄특수어린이대잔치는 장애학생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전국의 지체 및 지적장애 학생, 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약 2,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즐기는 흥겨운 대잔치입니다. 신 박사님께서서는 행사 때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면서, 키비탄 행사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것이므로 안전은 말 할 것도 없고, 몸이 불편해 자신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큰 기쁨을 줄 수 있는지 연구하고 또 연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장애학생들은 개인차가 심하므로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장애학생들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없다고 하시며, 학원에 등록하여 심리학 공부를 하라고 하시면서, 학원등록증까지 확인하시며 남달리 장애학생 사랑에 관심이 깊으셨습니다. 특수어린이대잔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지방 학생들이 먼저 가는 것을 보시고는 어느 학교인지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하실 정도로 행사가 잘 마무리 되지 않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특수어린이대잔치는 주로 서울에서 열렸지만 청주공군사관학교, 성남국군부대, 육군사관학교, 과천시서울대공원, 경주, 춘천 등에서도 열렸습니다. 청주공군사관학교에서 열렸을 때 전국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공군사관학교 학생들의 퍼레이드와 에어쇼는 학생들에게 큰 감흥을 주었으며 신 박사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시며 키비탄 행사를 지방에서도 훌륭히 치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수어린이대잔치를 개최하기 몇 달 전에는 전국특수교육총연합회 회장, 주요보직교장, 행사준비교장과 체육부장을 한자리에 초청하여 대잔치에 대한 개요를 말씀하시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시곤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저녁식사 시간에 신 박사님은 교장들과 음료를 권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시면서 그분들과 많이 친해지셨습니다. 신 박사님 돌아가신 후 몇몇 교장들은 끔찍이도 키비탄을 사랑하셨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진정으로 장애학생들을 사랑하시고 희망을 주신 분이라며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어린이대잔치와

자선의 밤 등에 후원해 주시는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 아가방앤컴퍼니의 김옥 회장도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학교의 많은 학부모들은 재활학교를 발전시키고 신축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신 박사님께 애도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前 연세의료원 교목실장이셨던 김기복 목사님께서서는 재활학교 졸업식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신 박사님을 보고 저렇게 걸으려는 엄하고 무서워 보이시는 분이 졸업식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장애인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선의밤 행사 때는 특수어린이대잔치 때와 마찬가지로 그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 또 점검 하셨습니다.



박숙자 前 연세재활원 교장

본인이 키비탄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83년 연세의료원 사무총장님이셨던 故 신정순 박사님을 도와서 특수어린이대잔치 행사를 거들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어느 날 사무처장실로 본인을 부르시어 박 선생은 재활학교 교장으로 학교일에도 전심전력해야 하지만, 주로 장애인 관련 사업을 하는 키비탄 일에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키비탄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움도 많았지만 전국 규모의 큰 행사를 치르면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보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본인의 평생소원이 연세의료원에서 독립하여 재활학교 단독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었습니다. 故 신정순 박사님과 박창일 키비탄 총재님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연세재활학교가 신축될 수 있었으며 영원토록 장애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펼치게 되어 큰 감사를 드립니다. 故 신정순 박사님은 키비탄 발전의 산증인이시며 키비탄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우리 키비탄 회원 모두는 신 박사님의 큰 뜻을 받들어 키비탄이 더욱 발전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前 연세대학교 재활학교 교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담당 강사 박숙자

故 신정순 박사님을 기리며



신 박사님의 별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 박사님은 일생동안 키비탄을 위해 아주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신 박사님과 제가 International Honor Key를 받은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국제키비탄 총재로 재임 중 한국을 방문했을 때 신 박사님과
국제키비탄한국본부의 총재는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다정한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전 세계의 키비탄은 존경하는 신정순 박사님을 그리워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 잭 브래드포드 국제키비탄 前 총재 -

국제키비탄 아시아지역 이사, 신정순 박사님의 별세 소식에 크게 놀랐습니다.
박사님께 애도를 표합니다. 박사님은 저의 스승이 되셨고 저는 박사님을 존경하였습니다.
저는 박사님을 그리워 할 것입니다.

- 요시 사코가와 국제키비탄 일본본부 사무총장 -

저는 키비탄에서 신 박사님이 봉사하시는 수년 동안 알고 계신 이사회와
전 국제본부총재들께 신 박사님의 별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저희는 박사님의 건강이 나빠지셨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고 박사님의 별세에 모두 슬퍼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5월 연례적으로 방문하여 박사님을 만난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쉽습니다.

- 존 라이너스 국제본부 부총재 -

신 박사님의 별세 소식을 듣게 되어 유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한국키비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열적으로 일 하신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사님은 우리가 2008년에 서울을 방문했을 때 매우 친절하게 반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이클 브라운 2007-2008 국제키비탄 전 총재 -

신정순 선생님.
월례회 때 선생님 자리 항상 비워 놓을테니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

- 남산클럽 드림 -

한국키비탄의 거목이 사라졌다.
그분은 최근까지 건강악화를 무릅쓰고
우리 키비탄을 위해 정열적인 활동을 해 왔고
우리나라 재활의학계의 태두일 뿐만 아니라 평생을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바쳤다.
금년 장애인의 날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기도 하였다.

- 동서 박승서 전 총재 드림 -

존경하는 신정순 총재님께 약속드립니다. 그 아름답고 높으신 뜻이
퇴색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재님께서 실천하신 사랑의 열정을
있는 무지개다리가 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 경희고향클럽 드림 -

총재님은 평소에는 물론이요, 몸이 불편 하실 때도 매일 나오셔서
업무전반에 걸쳐서 한 치의 잘못도 용서치 않으시며 대쪽 같은
성격에 원칙을 제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한 업적이 우리 키비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이 잠드소서.

- 춘천클럽 드림 -

국제키비탄한국본부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셨던
큰 뜻에 감응하며 소천(召天)하심에 추모의 정을 표합니다.

- 광주 차일헌 전 부총재 드림 -

故 신정순 박사님을 기리며

총재님! 떠나신 후에야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고
허전한지 이제야 느낍니다.
늘 자리를 함께하시며 진정한 성자였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 저의
아둔함을 자책합니다. 이제 모든 걸 놓으시고 영면하십시오!!!

- 한국 이영호 전 부총재 드림 -

아름다운 영혼의 흔적을 그림자로 잠시 남기고 가신 총재님께
지전으로나마 고마움을 전합니다.

- 부산클럽 드림 -

장애인 재활 및 복지향상에 일생을 바치신 박사님의 정신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 풍요로운 밀밭을 이루듯 그 위대한 정신은 영원합니다.

- 대전클럽 드림 -

신 박사님 계신 곳은 키비탄도 필요없는 낙원이겠죠?
노심초사하시던 키비탄! 더욱 발전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청주 남중우 전 총재 드림 -

큰 베품목이셨고, 봉사정신에 일생을 다하셨던 고귀하셨던 님,
당신의 정신을 이어받아 부끄러움 없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신정순 총재님의 뜻을 항상 기립니다.

- 썬클럽 드림 -

키비탄의 역사이신, 신 박사님께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장애아동을 위해 봉사하시는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 회원들은
더욱 열심히 키비탄을 발전시켜 보답하겠습니다.

- 청풍클럽 드림 -

신정순 총재님, 장애아동을 사랑하는 발걸음
돌아가시는 날까지 쉬지 않으심을 빠포하며 우리도 평생
키비탄맨으로 끝까지 봉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천국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소서.

- 고임클럽 드림 -

장애아동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에 평생을 바치시고,
한국키비탄 발전에 혼신을 다하신 선생님의 숭고한 열정에
저희 제자들은 감사를 드립니다.

- 대구키비탄 박기영 부회장 드림 -

신정순 총재님, 늘 장애아동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우리 키비탄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우리 회원들은 당신의 뜻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지켜봐주세요.

- 충주클럽 드림 -

이웃사랑의 숭고한 뜻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 음성클럽 드림 -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헌신적인 봉사로 키비탄 발전에
크게 공헌하신 자취가 영원할 것입니다.

- 동해클럽 드림 -

신정순 총재님은 한평생 장애아동을 사랑하셨으며 헌신적으로
애쓰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키비탄 발전에 애쓰시고
정신적 지주셨던 총재님의 봉사정신을 이어받아
저희 태백클럽도 화합과 분쟁이 없는 클럽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태백클럽 드림 -

평생을 장애인의 심신을 보살피사 거룩하신 의인으로 살다
가신님 이시어~, 당신께서 다녀가신 뒷길에서 후배들이
그리움에 젖습니다.

- 미술클럽 드림 -

키비탄한국본부를 누가 열고 갈고 닦았는가,
신정순 총재님의 덕은 이미 녹아 어우러져 있고 장애우들의
복지는 장차 좋아지리니 어찌 총재님의 길을 본받지 않을까요.

- 수원클럽 드림 -

신정순 교수님께서서는 한국 재활의학의 선구자이며
의료인으로, 학자로, 봉사자로서 평생을 헌신하셨고, 행동으로
본을 보여 주신 스승님이셨습니다. 저희 엔젤스 클럽은 각별한
애정으로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키비탄 신조를 마음에
새기고 더욱 힘차게 봉사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엔젤스클럽 드림 -

키비탄의 모든 활동과 회의에서 늘 조용히 지지의 손길을
주셨던 박사님의 열정과 나눔에 대한 정신은 강남엔젤스
클럽의 기본 비전입니다

- 강남엔젤스클럽 드림 -

국제키비탄활동에 없어서는 안되는 정말로 훌륭하시고,
존경하는 큰 별을 잃은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일산클럽 드림 -

존경하며 사랑하는 신정순 박사님! 박사님의 삶을 통해
가르쳐주신 장애인사랑을 실천하며 따르겠습니다.
다시 뵈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밭클럽 드림 -

금년은 심한 더위로 힘든 여름을 지냈습니다.
어제야 신정순 총재께서 작고하셨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한국키비탄을 이끈 분의 공이 너무나 지대합니다.
삼가 고인의 영전에 명복을 빕니다.

- 김주환 전 총재 -

선생님,

키비탄은 저희가 잘 지키겠습니다.

이제 이곳의 일은 저희들에게 맡기시고

하늘나라에서 평안하십시오.



『키비탄 소식』

2013
특집호

- 발행인 : 박 창 일
- 편집인 : 이 광 원
- 발행일 : 2013년 10월 31일

• 발행처 : 사단법인 국제키비탄 한국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50
연세의료원내
(직통) TEL, 364-7804, FAX, 2227-8060
<http://www.civitankorea.com>

※ 故 신정순 박사님을 추모하는 소식지를 무료로 제작해 주신 (주)프렌드엠 신준석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